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㉓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의 모든 불보살들은 연화대 위에 앉거나 서 있다. 연꽃은 불교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도상이다. 무명업장을 녹인 자리가 곧 극락이고, 이를 상징하는 게 연꽃이다.



무명 밝힌 자리엔 연꽃이 핀다

〈관경16관변상도〉(속칭 극락도) 속의 모든 성자들은 연화대 위에 있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앉거나 서거나 모두 연꽃을 기반으로 한다. 물론, 이는 본 그림에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다. 지구상의 불교미술 전체를 통틀어 적용되는 핵심 특징이다. 만약 부처님이 연꽃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물체 위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 겉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불교미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렇듯 연꽃은 불교에 필수불가결한 도상이다.

연꽃은 어디에 피는가? 본 그림 가운데의 아미타3존을 둘러싸며, 화면의 사면 외곽에는 총 8개의 극락연못이 존재한다. 숫자 '8'은 '영원'을 상징하는 무한의 숫자이고, 조형화하면 '○'(원형)으로 표시한다. 불교에서는 특히 8이란 숫자가 많이 나온다. 8정도 · 108번뇌 · 8공덕수 · 8대보살 · 48대원 · 8만4천 광명 등. 공간미술에서 8각은 둥근 원형 '○'을 지향한다. '○' 표시는 특히 선종에서는 '궁극의 깨달음'을 그 자체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그 유구한 전통을 자랑한다.

아무튼 8개의 극락연못 속 왕생인물도 마찬가지다. 모두 연꽃 위에 앉아 있다. 자색과 하얀색의 연꽃잎이 3중 중층으로 활짝 피었고 그 안에 연방(연씨를 품은 꽃턱)이 평평한 받침대 역할을 한다. 부처 · 보살님과 왕생인들, 다 이렇게 연꽃 위에 있다. 이렇듯, 우리는 "연화대 위에 앉아 있다" 또는 "연화대 위에 서 있다"라는 표현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연화(또는 연꽃)'을 그저 '대좌 또는 받침'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는 본질적으로 '연화화생(蓮華化生)'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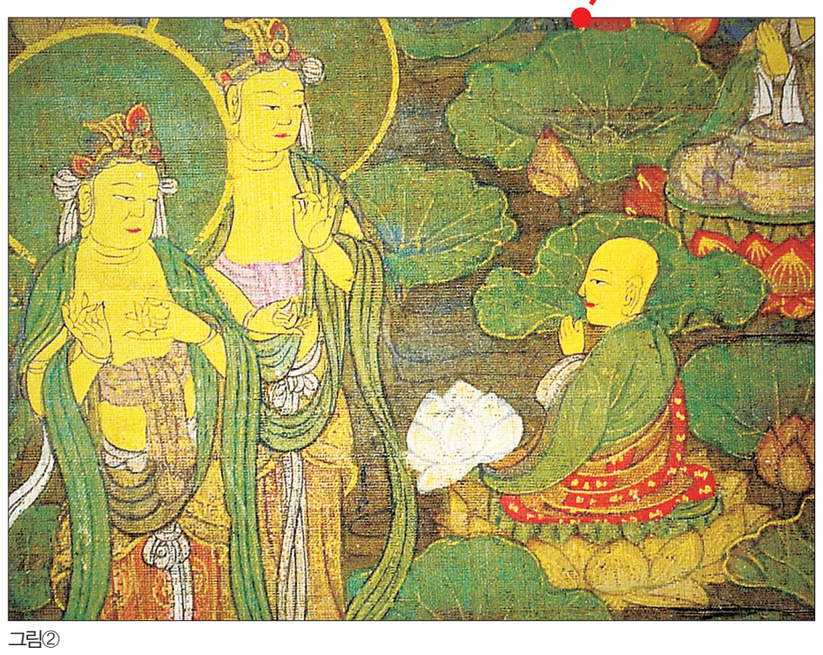
그림①

그림①.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의 하단 부분. 1323년에 조성됐다.

그림②.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의 중품중생의 연화화생 장면. 극락의 연못이 표현됐다.

〈관경변상도〉 모든 불보살들
연화대 위에 앉거나 서 있다
연꽃은 불교서 필수적인 도상

무명업장을 녹인 자리가 극락
연화화생은 곧 극락왕생 의미



그림②

극락 연꽃은 어디에 피나

연꽃 위에 '앉아 있고' 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꽃에서 '화생' 하였다는 의미이다. 즉, 연꽃에서 태어났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연꽃이 '존재의 바탕'이 된다. 연꽃 따로, 존재 따로가 아니라, 연꽃과 존재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에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연꽃이 해당 존재의 엄마가 되는 것이다. 존재의 모태가 자궁이 아니라 연꽃이라는 말이다. 태생(胎生)이 아니라, 화생(化生)하게 된다. 화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청정한 바탕(법신)' 한 바탕에서 연기(緣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불(化佛) · 화신(化身) · 응화신(應化身) · 화신불(化身佛)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무명이 아니라 청정 바탕에서 연기하여 모양새를 갖추는 경우에는 모두 화생에 해당하기에 '화(化)'자를 어두에 쓴다. 청정한 바탕에서 청정한 에너지가 나와 무상하게 이합집산하는 것을 법계연기라고 한다. 이렇게 '연기화생(緣起化生)' 한 모습이 정토의 모습이고 극락의 모습이다. 물론 우리 중생은, 청정한 바탕이 아니라 무명의 바탕에서 시커먼 에너지가 응집된 덩어리이다.

그렇다면, 이 '연꽃은 어디에 피는가?' 이에 대한 답부터 언급하자면, '스스로가 무명업장을 맑힌 그 자리에 핀다.' 업장을 맑히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현재 내 바탕자리는 '무명(無明)'이다. 내 존재의 근원이 무명이기에 고통스럽게 윤회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인간 세상(人道)를 포함한 육도윤회의 세계는 무명을 기반으로 형성된 세계이다. 반대로 열반(부처 보살)의 세계는 청정업(淸淨業)을 바탕으로 한다. 무명을 맑히는 것은 나의 현재 밑동을 치는 것이다.

즉, 윤회의 기반을 없애는 작업이다. 그 비결을 최초로 알려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것을 설파한 것이 불교이다. 무명을 없애는 법, 그것은 12연기(緣起)를 보는 것이다. 덩어리를 해체해서 보면 사라진다. 해체되는 순간, 공(空)의 자리가 드러난다.

12연기는 무명의 본 모습이다. 무명 덩어리를 산산이 해체한 결과이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 나(부처)를 본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연기라는 진리를 어떻게 보느냐. '선정과 지혜(정혜, 定慧)로 본다. 붓다께서 누차 말씀하신 노하우 '계(戒)-정(定)-혜(慧)'다.

연화화생=극락왕생, 무슨 뜻

연화화생을 다른 말로 '극락왕생(極樂往生)'이라고도 한다. 한 번 더 풀이하자면, 극락에 태어나는 것을 "극락 연못에 왕생한다"고 한다. 극락 연못과 극락 땅에는 연꽃이 가득 피었다. 그 연꽃에서 화생하게 된다는 말이다. 불자들이 영원불변 염원, 극락왕생! 극락왕생과 연화화생은 같은 말이다. 그러면 연화화생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연꽃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 연꽃은, 지상의 수초인 연꽃을 곧이곧대로 의미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꽃'을 비유한 말이다. 반야의 눈이 떠질 때, 깨달음에 근접할 때, 세세생생 닫혀 있던 봉오리는 열리게 된다. 그 모양이 '천 잎의 연꽃'과 매우 비슷하다. 꽃만 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사람도 꽃을 피운다. '깨달음의 꽃'이다. 그러면 이 깨달음의 꽃 모양새가 어떤지, 아미타3부경에 언급된 내용을 보도록 하자.

극락세계에는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아름다운 연꽃이 온 불국토에 가득 피었는데, 보배로운 꽃송이마다 백천 억의 꽃잎이 있고, 거기서 발하는 광명은 한량없는 빛깔로 이루어졌다.(중략) 한 꽃송이마다 삼십육 백천 억의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발하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 삼십육 백천 억의 부처님이 나투시니, 몸은 자마금색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중략) 각각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백천의 광명을 비추어, 시방세계의 중생을 위해 미묘한 법문을 설하신다.
-〈무량수경〉 '극락정토의 장엄' 중

이러한 모양새를 직접 체험한 고려시대 화승들은 이것을 고려불화에 가감 없이 그려놓았다. 본 〈관경16관변상도〉에는 "보배 연꽃이 불국토에 가득 피었다"를 옮겨놓듯, 무수한 연꽃이 연못에 온통 가득하다.

"극락세계에는 8공덕수를 갖춘 보배연못의 물이 있다. 이 물은 여의주에서 흘러 나왔느니라. 이 물 줄기는 황금의 연못을 이루고, 그 연못 바닥은 눈부신 금강석이 깔리고, 황금 연못마다 60억 개의 칠보 연꽃이 피었다. 그 연꽃은 둥글고 탐스럽고 크기가 12유순이나 된다."
-〈관무량수경〉 '공덕수를 생각하는 관' 중

또 〈아미타여래도〉(일본 선림사 소장)의 연화대는 매우 장엄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연꽃 잎사귀의 잎맥 표현이 철선묘의 금니(金泥)로 압도적이다. 한 연꽃잎마다 극세필로 그려진 잎맥 선의 숫자가 무려 60줄을 넘는다. 오롯이 뿜어 나는 무수한 마이크로 잎맥 선들만 보아도, 극락의 풍경 한 자락을 체험하는 듯하다.

"연꽃의 꽃잎마다 백 가지의 보배 빛깔이 있고, 그 꽃잎에는 8만 4천 줄의 잎맥이 있는데, 마치 천상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 잎맥 마다 다시 8만 4천의 광명이 빛남을 분명히 보도록 하라."
-〈관무량수경〉 '연화대를 생각하는 관' 중

근기가 낮은 중생은 이러한 풍경을 실제로 체득하기 어렵기에, 이렇듯 불교 경전과 불교 그림에서 비유하여 최대한 가깝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향벽련대(벽련대반)', 푸른 연꽃으로 향하다

조계종 천도재 때 교과서 격에 해당하는 〈관음시식(觀音施食)〉을 보면, '증명청(證明請)' 대목에서 '향벽련대반(向碧蓮坮畔)'이란 용어를 만날 수 있다.

手擎千層之寶盖 身掛六銖之花蔓 導請魂於極樂界中 引亡靈 向碧蓮坮畔 大聖引路王菩薩摩訶薩 唯願 慈悲 降臨道場 證明功德(손에 천층의 보개를 받들고/ 몸에 온갖 꽃목걸이 걸치시고/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하시며 망령을 이끌어/ 벽련대반으로 향하게 하시는/ 큰 성인 인로왕보살이여/ 원컨대 자비로 강림하시어/ 증명의 공덕을 베푸소서)

이 같은 해당 부분의 용례의 쓰임을 보면, '引亡靈 向碧蓮坮畔(망령을 인도하여 벽련대반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여 바로 앞 구절의 극락세상을 말하는 비유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육도윤회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푸른 연꽃 대좌가 있는 연못으로 향하게 한다는 표현이니, 이는 영가를 이끌어 극락의 연못에 '연화화생' 또는 '극락왕생' 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벽련대반'이라는 용어는 '극락의 푸른 연꽃 물가'를 지칭하고, '향벽련대반'은 '벽련대반으로 향해 간다'라는 말이니, '연화화생'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구라 하겠다. 그래서 영가를 모시는 '탈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벽련대'가 실상 연화화생의 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락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